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전남수산 타격 우려

정부 “日오염수 6월께 방류” 통보
4개 시·도와 연대... 검사 강화
‘전품목 검사’ 지자체 역량 한계
시민단체 “윤 정부, 방류 인정 의심”

일본 정부가 오는 6월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전남 수산업에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원전 오염수가 영향을 미칠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4개 광역시·도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연안까지 오염수가 도달할 경우, 국내 수산물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와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일본이 6월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통보를 받으면서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류 전·후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물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 8명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소비자들의 수산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에 따라 수매 확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도 강화했다. 요오드·세슘 등 2개 항목에 대한 검사에서 대상 품종을 늘리고 조사건수를 늘리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도는 방사능 조사 장비도 확충했다. 오

염수가 방류되면 방사능 조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감마핵종분석기를 2대에서 3대로 늘렸고 올해 말까지 1대를 더 추가한다. 현재 전남도는 60개 품목에 연간 700~800건 가량의 품목 검사를 하고 있다. 방류 후에는 전 품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연간 1000건 이상을 검사할 전망이다.

수산물이 출하되기 직전 식탁에 오를 품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가장 중요한 절차지만 한계가 많다. 시료 채취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빨라도 2~3일 걸린다. 현재 검사하는 60개 품목에서 방류 후 전 품목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관측이다.

전남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이 방류할 방사능 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전남이 갖고 있는 감마핵종분석기로는 트리튬을 감별할 수 없고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할 수 있다.

트리튬은 정부가 분석 가능한 핵종으로, 지자체가 방사능 오염 수산물 사후 감시에 한계가 따른다.

도는 정부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방류 후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철저 관리와 품목 확대도 필요하다.

도민 우려감이 상당한 만큼, 도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기관 등은 오염수의 안전에 별 이상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전남도 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 위축과 신뢰도 하락 등이 예상되는 만큼 수매를 통해 비축을 해두고 소비촉진 행사, 손실보상 직불제 등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최황자·조진용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회원들이 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와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전남 현직 조합장 62% 연임 성공

광주 12명·전남 105명
고흥 녹동농협 女 당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 현직 조합장 후보자들이 대거 연임에 성공했다.

고흥 녹동농협에서는 최초로 여성 조합장이 탄생하며 ‘금녀의 벽’이 깨졌다.

9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광주 18명, 전남 182명 조합장의 당선이 확정됐다.

200명의 조합장 중 광주 2명, 전남 52명은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 146명 가운데 현역 조합장은 광주 12명(66.7%), 전남 105명(57.7%)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증명했다.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다선 조합장도 여럿 탄생했다. 광주에서는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과 박흥식 비아농협 조합장 등 2명이 4선에 성공했다.

전남은 나용석 무안 삼향농협 조합장과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6선에 성공해 견재함을 입증했으며 고흥훈 목포원에농협 조합장과 황성오 영암 삼호농협 조합장이 각각 5선 고지에 올랐다.

여성 당선자는 단 한 명으로 조합장 선거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 모두 5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중연 전 고흥 녹동농협 도덕지점장이 녹동농협 조합장에 당선돼 유일한 여성 당선자가 됐다.

2019년 제2회 선거에서 고흥 풍양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박미화 후보가 1988년 직선제 조합장 선거 이후 31년 만에 광주·전남 최초 여성조합장에 오른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된 ‘현직 프리미엄’ 현상의 이면에는 ‘깜깜이 선거’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이번 선거 역시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허용된 탓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광주 지역 투표율은 82.6%, 전남 80.9%를 기록했다. 당선인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조합을 이끈다. 김은지 기자

3·8 조합장 선거 당선자 ▶ 10·11면

광주사람들 (506/1000)
김춘호
변호사
▶ 광진기사16면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 (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